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4. FALL

국
두
꽃

2014 가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특별전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 전국화

전시기간

2014. 8. 19(화) ~ 12. 31(수)

장 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대둔산 항전 발굴 유물

‘동학농민군 대둔산 항전’은 지난 1994년 최초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대둔산 능선의 해발 600~750m 지점에서 집터 3곳을 비롯해
석굴 2곳 등 동학농민군 항전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동학군의 활동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주거지와 석굴(2기), 식사를 준비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아궁이 터 등이 발굴됐으며, 탄두도 출토되었다.

CONTENTS 2014 가을. 17호

02	120	
04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08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특별전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	08 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동학농민혁명의 노래'
12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30 동학농민혁명 재조명의 단초를 마련한 -'고부초교 100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
14	1 ! 대를 거쳐 이어져 온 증조부의 구국정신	32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18	2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위해	35 김윤덕 의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발의
22	임실, 장수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39 법정기부금 기탁안내 외
26	방랑시인 '김삿갓'이 된 전봉준의 비서 정백현	46
28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4년 가을호(17호)

발행일 2014년 10월 15일

발행인 김대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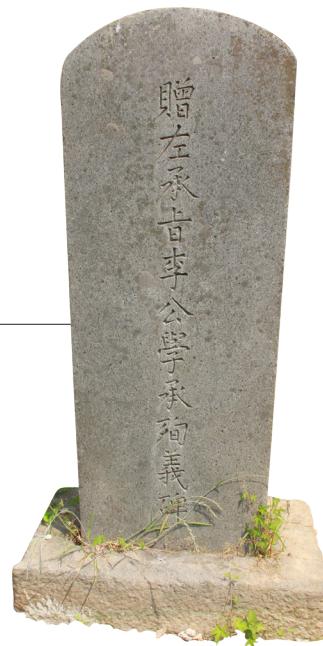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축·하·메·시·지



민주 사회의 주춧돌,
동학농민혁명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재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5·18 가족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간 중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외세를 몰아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5·18 가족은 120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정읍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되살아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화해와 상생의 바탕 위에 사람이 다시 하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연대의 손길을 보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원동력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박장혁**

만민평등사상을 일깨운
민중항쟁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감사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인 ‘자주, 평등, 상생’은 3·1운동을 비롯한 여러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가 자랑스런 민주국가로 성장하게 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120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세계화시키고, 그것을 미래의 가치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일등국가를 넘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감회 깊은 축하를 보냅니다. 인권의 동토인 봉건사회에서 왕권의 권위와 권력에 짓눌려왔던 민중들이 만민평등사상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인권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혁명을 통해 발현되고 증명된 우리 민족의 자유평등 DNA는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전승되면서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선두 대열에 설 수 있는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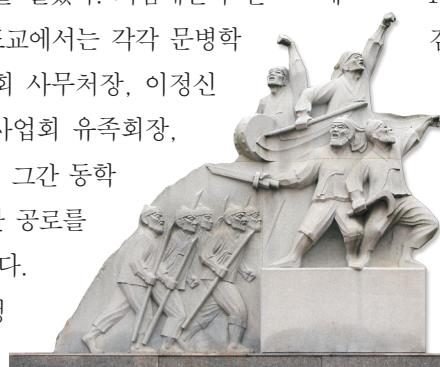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즉, 2주갑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기치로 기념대회를 준비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기념재단과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김석태), 천도교(교령 박남수)가 MOU를 체결하여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기념대회를 공동개최하게 되어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제100주년 기념대회 당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천도교가 공동개회를 추진하다 결렬된 바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다. 기념대회 첫째 날인 10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참가인원 500여명이 한 곳에 모여 상호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를 벗어난 화합의 장을 펼쳤다. 기념재단과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에서는 각각 문병학(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정신(사)장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유족회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에게 그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튿날 11일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동학농민혁



명 제12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여러 귀빈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하였고, 미처 식장에 참여하지 못한 정홍원 국무총리,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보내거나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달하였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하였던 일본군 후비보병 제 19대대의 후손들이 기념식장을 방문하여 김석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에게 꽃바구니를 건네고 국경과 역사를 넘어 화해를 구하는 퍼포먼스가 열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기념재단에서 제작한 동학농민혁명 기념 가 '동학농민혁명의 노래'가 그란데오페라단의 합창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다.



상 기념식 무대 하 체험행사



기념대회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사회와 자주독립국가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전국적 규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기념되고, 대한민국의 대표 인문 정신으로서 세계로 퍼져나가며, 미래지향적 가치로 재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시간,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에서는 기념식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특설무대를 마련하여 이원생중계 모니터를 통해 기념식을 생중계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자료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모 포스터전 등 전시회와 판화, 캘리그래피, 페이스페인팅, 동학농민혁명 골든벨, 포토존, 캐리커처, 신사발통문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열렸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한데모여 풍물패와 함께 만장 150개를 들고 서울시청 광장부터 서울역사박물관 광장까지 행진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도착한 이들은 국단 꼭두광대와 브라스밴드,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기념식 중 박원순 서울시장은 ‘2주갑이라는 뜻 깊은 해에 개최되는 이번 기념대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가 높아지고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한층 더 드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으며,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기념대회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사회와 자주독립국가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전국적 규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기념되고, 대한민국의 대표 인문정신으로서 세계로 퍼져나가며, 미래지향적 가치로 재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의 기념식이 이를 위한 재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특별전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

기념관운영부 학예사 박아영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 올해로 12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20년간 ‘동학란’, ‘갑오민란’ 등으로 불리며 평가절하 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평가되고, 동시에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 하는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등장하며 오늘날 ‘동학농민혁명’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한층 또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에도 꾸준히 진행 중이며, 1894년 개혁의 주체로 사회의 모순을 척결하고, 외세에 맞서 자주적으로 국권을 수호하고자 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더





동학농민혁명지도자 박중진 흉상

이번 전시는 지역을 뛰어넘는 전국화, 대한민국 대표 정신으로서의 세계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는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이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어느 곳에 내어 놓아도 손색없는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으로 가꾸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지역을 뛰어넘는 전국화, 대한민국 대표 정신으로서의 세계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는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전시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등 함경도 지역을 제외한 조선의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고부지역에서 전봉준 장군과 이 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전국으로 퍼져 조선 땅 전역을 뒤흔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함경도 지방을 제외한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지역이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예를 들면 1894년 6월 집강소 설치 후 정국의 추이를 살피며 비교적 잠잠했던 전라도 지역의 동학농민군과 달리 경기도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마을에 보루를 쌓는 등 매우 분주하였고, 일본군의 병참선로와 전신주가 처음 설치된 경상도 지역도

외세에 맞서 자주적으로 국권을 수호하고자 한 동학농민혁명
이러한 과정이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는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독일 농민전쟁 등은 지구 반대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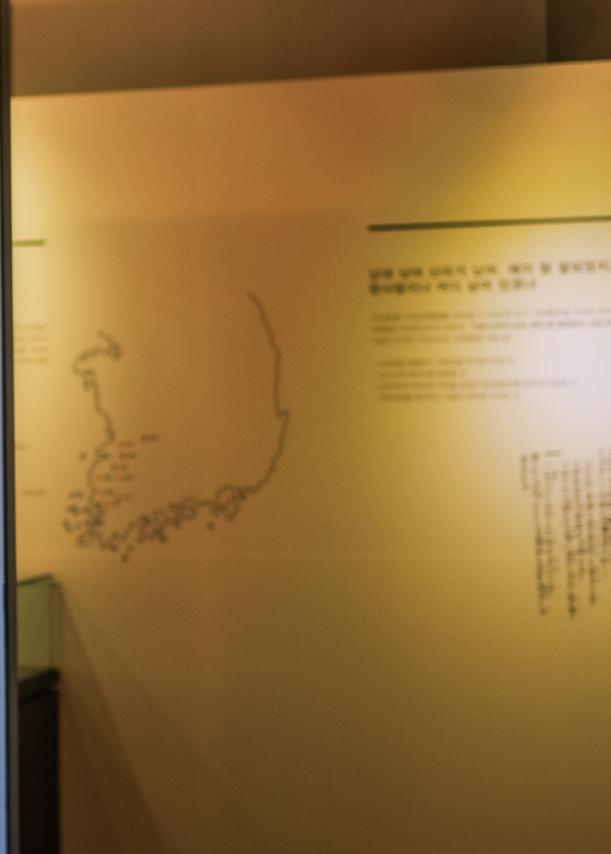
전개되었던 세계의 혁명들을 살펴보며 과연 인류가 추구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포스터의 당선작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열들의

4·19 혁명, 5·18 민주화 항쟁 등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 오늘날

고자 한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 올해로 12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20년간 ‘동학란, 갑오민란’ 등으로 불리며 평가절하 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평가되고, 동시에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 하는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등장하며 오늘날 ‘동학농민혁명’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한층 또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에도 꾸준히 진행 중이며, 1894년 개혁의 주체로 사회의 모순을 척결하고, 외세에 맞서 자주적으로 국권을 수호하고자 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이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어느 곳에 내어 놓아도 손색없는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으로 가꾸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지역을 뛰어넘는 전국화, 대한민국 대표 정신으로서의 세계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는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전시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등 함경도 지역을 제외한 조선의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고부지역에서 전봉준 장군과 이 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전국으로 퍼져 조선 땅 전역을 뒤흔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함경도 지방을 제외한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지역이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예를 들면 1894년 6월 집강소 설치 후 정국의 추이를 살피며 비교적 잠잠했던 전라도 지역의 동학농민군과 달리 경기도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마을에 보루를 쌓는 등 매우 분주하였고, 일본군의 병참 선로와 전신주가 처음 설치된 경상도 지역도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었다. 또한 황해도 지역은 타 지역의 혁명이 막을 내린 1896년까지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전해진다.

한편 조선 땅 전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우금치전투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전투의 패전과 지도자들의 체포로 우금치전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린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지만, 동학농민군을 조선의 서남쪽으로 몰아 모조리 섬멸하려는 일본군의 진압작전과 그에 맞선 동학농민군과의 전투가 다음해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이는 충청 보은의 북실 전투와 장흥의 석대들 전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 외에 강진과 대둔산 등지에서 1895년 2월까지 항쟁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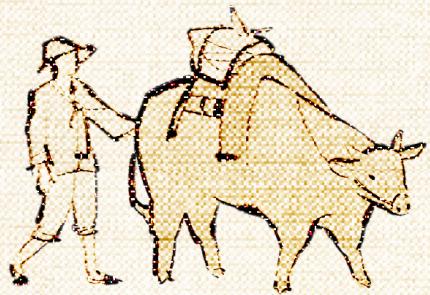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추구한 삶과 가치에 주목하였다. 19세기 조선은 삼정의 문란, 이양선의 출몰 등 나라 안팎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고, 백성들의 불만 또한 커져가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단발적 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 그 증거이다. 결국 참다못한 농민들은 직접 세상을 바꿔보고자 결의를 다렸고, 이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표출되었다.

이렇듯 구체제의 악습과 전근대적 제도에 오랜 기간 억압당했던 백성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고자 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을 침입한 일본군에 당당히 맞서는 반외세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동학’이라는 사상(종교)이 전국의 동학농민군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선의 농민이 사상(종교)을 매개로 하나가 되어 봉건제도와 외세에 대항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세기 말 조선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던 그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과 부정을 물리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존재하였으며, 그것은 곧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독일의 농민전쟁, 인도의 세포이 항쟁과 중국 태평천국의 난 등이 대표적이며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 등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20년을
함께 생각하고자 기획한 이번 특별전은 올해 말까지 관람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63-536-1894으로 연락바랍니다.**





사랑, 다시 하늘이 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 **고광현**

갑오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이 깃발을 올린 지 1백20년이 됐다. 육십갑자(甲子) 긴 세월이 우리 앞에 두 번씩이나 찾아왔다. 많은 이들의 언명이 있었다. 혁명은 기억할 때에만 자존감을 드러내고, 기억은 정신이 오늘의 삶에서 재현될 때에만 미래의 좌표가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혁명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참담하게도 공동체의 삶은 제도 민주주의 마저 감당 못하고 허덕이는 처지다. 혁명의 기억은 쪼그라들어 오늘도 호남과 충청 일부에 고립돼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1백20년 전의 농민은 오늘 비정규 노동자로, 88만원 세대로, OECD 최악의 노인 빈곤국 가로 얼굴이 바뀌어 새로운 내정혁신의 깃발을 올려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사람이 하늘이다.”

이 불운하기 짝이 없는 전복의 선언은 서세점동기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선구적 ‘근대어’이자 부패한 내정과 외세라는 거악에 맞선 ‘인권선언문’이었다. 그런데, 2주갑을 맞은 지금 그 정신은 관련 기관과 유족단체들 안에서만 부산하다. 우리들의 의식 안에서 혁명 농민들의 희망은 여전히 미복권 상태에 있는 것이다. 농민은 유생 의병과 똑같이 부패한 내정 혁파와 주권 수호를 위해 외세에 맞섰으나, 계급의 벽은 외세의 기관총 세례보다 더 서럽고 잔인했다. 상놈이어서 잊혀져야 했고, 양반이어서 추모의 대상이었다. 상놈은 두

고두고 반란의 낙인을 새겨야 했고, 양반은 대대로 충정의 옷을 입혔다. 조선 농민군은 조-왜연합군에 맞서 30여 만 명이 목숨을 잃고도 1세기 이상을 ‘반란’과 ‘반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 지난 1백20년 동안 우리들의 의식 역시 꼼짝없이 봉건 유전자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셈이다. 우리는 그들이 끝끝내 바라던 ‘하늘’을 여태껏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동학농민혁명 같은 세계사적 자랑거리마저도 국가 차원에서 내놓고 기리기 시작한 게 불과 10여 년 전이다. 그마저도 1백 년 넘게 그 불온함이 충분히 마모된 시간을 보내고서야 가능했다. 그리고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압도적인 망각의 풍경은 심상치 않다. 민주주의의 역진 아래서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수구적 드라이브는 갈수록 혁명의 온전한 기억이 들어설 공간을 좁히고 있다.

변화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적 지역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보적 부분의 역할을 하면 된다. 혁명으로부터 역사적 정당성을 세우고 영웅들의 전설을 찾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모든 사업은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 두고 실천하자. 아무리 훌륭한 과거라도 현재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천해지거나 강자의 노리개가 될 수 있다. 영웅의 행적은 현재의 삶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각종 사료와 유물을 모아 분석하고 논리화할 수 있는 학술적 차원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는 농민혁명과 관련해 조상들이 남긴 각종 문서와 유물들이 남아 있다. 농민혁명은 조선 지배 권력에 대한 항쟁이면서, 일본과 청국이 개입한 국제적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있다. 1백20주년과 기념공원 설립을 계기삼아 적극적인 사료 수집을 해야 한다. 이들 나라에 문헌전공자들을 파견해 해당 정부의 공식기록에서부터 과거 군인과 외교관들의 공식 비공식 보고문서, 신문과 방송 잡지의 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료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 사회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지역정치인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기억의 정치를 위한 공약을 하고 당선 뒤에는 반드시 실행에 옮기도록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 농민혁명과 관련한 전문 연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발굴해 학술적 업적을 두텁게 쌓도록 하는 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혁명 2주갑이지만 우리 학계의 학문적 열정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오랫동안 민란 혹은 반역으로 배척 받아온 사실에서 보듯 우리의 연구 환경은 전문연구자들에게 학문적 열정을 쏟아 붓도록 유인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적극적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전국화와 세계화, 미래화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의 확장을 통한 기억의 힘을 재배치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혁명의 역사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침 우리 재단이 전북도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보조교과서 발행에 나섰다. 교과서가 나오면 전북 지역 초중등학교 학생들부터 배우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현실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는 홀로코스트 만행을 저지른 히틀러와 나치의 범죄를 심판하고 기억하기 위해 역

사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 역사편찬위원회가 추진한 중요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공동교과서를 만드는 일이었다. 오직 기억하는 것만이 또 다른 범죄와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엥겔라 마르겔 독일 총리는 “우리는 나치의 각종 범죄와 2차 대전의 희생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코스트에 대해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는 인종차별이나 반유대주의가 빛붙이지 못하도록 개인이 용기를 갖고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대대 손손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쟁하는 국가’로 바뀐 아베의 일본이 우경화로 치닫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도 농민혁명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사 전반을 공동교과서에 새겨 세 나라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농민혁명이 내세운 자유와 평등의 정신은 오직 미래 속에 거주할 청소년들에게 내면화될 때에만 역사투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사업 역시 화석화한 정신이 역사의 거푸집을 뚫고 희망의 미래 속으로 이주하는 사업이다. 그런 만큼 기념하고 조형하는 모든 것들은 기억의 현재화에 복속돼야 한다. ‘대물’ 지향은 사양이다. 크고 웅장하기만 한 구조물은 미래까지 지배하려는 폭력일 수 있다. 과시적인 대형화는 당대 권력의 자화자찬일지는 몰라도, 기억함으로서 미래를 찾아가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도 국가 기념공원은 참혹했던 역사의 슬픔과 상처를 애도하고 기억하는 상징성을 품어야 한다. 건물 하나하나에서부터 물 한포기에 이르기까지 기품과 절제미가 드러나는 작품이어야 한다. 외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기억의 힘을 끌어내는 공간이어야 한다.

대를 거쳐 이어져 온 증조부의 구국정신



참여자
유상렬의 증손
유제구

Q 유제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네, 옥천 증약전투가 일어났던 1894년 11월 당시 동학농민군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증조부께서는 전투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이들에게 보리쌀 등을 몰래 전달하셨습니다. 특히 황룡사의 서낭당에 전 재산과도 같은 암소와 송아지를 한 마리씩 매어두고 오신 후 농민군에게 소 두 마리를 두고 왔으니 식

조부께서는 한학에 조예가 깊어 명망 있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동학농민 혁명 참여자의 유족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조부님을 회유하기 위해 당시 군북 2소의 초대면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량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학농민군을 도운 것이 관군에게 밭각되어 고리산으로 피신하여 생활하셨습니다. 중조부님의 형수께서는 산에서 나물을 뜯는다는 평계로 가족들을 한명 씩 고리산으로 보내 중조부께 식사를 배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시던 중 밀고에 의해 형수님이 관가에 잡혀가게 되셨고, 갖은 고초를 당하시다 병을 얻어 일찍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Q 조부님과 부친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A 조부께서는 한학에 조예가 깊어 명망 있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조부님을 회유하기 위해 당시 군북 2소의 초대면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부께서는 감투에 눈이 멀어 일제에 봉사하지는 않았으셨고, 오히려 면 공금을 천도교 기금으로 보내 독립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금을 빼돌린 것이 밭각되어 6개월 만에 면장에서 파직되셨고, 충주 형무소에서 8개월간 옥고를 겪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때 조부님이 걱정되어 옥살이 중 서른 두 번이나 면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형무소에서 석방되신 이후에는 개명을 하신 뒤 방랑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옥천에서 훈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중조부님과 조부님의 뜻을 이어 천도교 옥천교구에서 공선원, 선전부장, 경리부장 등 여러 직을 맡으시며 독립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서는 일본인들의 감시가 심해서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천도교인 200여명을 농민개척단이라는 명목으로 인솔하여 만주로 가셔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해방되던 날 아버지께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앞산에 올라 만세삼창을 외치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해방 후에도 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천도교임시사무소에서 활동하시며 대구 달성공원의 수운선사 기념비 건립에 동참하시는 등 교세확장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Q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어느 분께 전해 들으셨습니까?

A 제 아버지께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방이 되어 앞산에서 만세삼창을 외치셨던 그 날, 처음으로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것, 천도교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치도곤이 따를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씀을 못하시다가 해방이 되자 그 한을 풀듯이 저에게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들어 기억하고 있다 보니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 저를 보고 ‘우리 가문을 지킬 사람은 너 뿐이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니 그렇게 알거라.’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Q 그분들의 구국활동으로 인해 집안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조부님의 형수님께서는 밀고로 인해 불잡히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병을 얻어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 조부님과 아버지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항상 일본경찰들의 감시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만주에 다녀오신 이후에는 군북주재소에서 집 사랑채 벽에 순찰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의 명목으로 일주일에 한번정도 긴 칼을 찬 일본인 순사가 세퍼드나 불독 같은 큰 개를 몰고 찾아와서 아버지의 동향을 묻고, 집을 뒤져 찾아낸 여러 문서를 주재소로 가져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커다란 개가 두려워서 강변으로 도망쳐오곤 했습니다. 식량도 언제 빼앗길지 몰라 강변에 묻어두고 꺼내먹으며 생활했습니다.

Q 증조부님 때부터 대를 이어 천도교 활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A 증조부께서 동학에 입도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전해들은 것이 없어 확실히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부께서는 면의 공금을 천도교에 보내셨을 정도니 입도하여 활동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아버지께서는 20살 무렵부터 근 65년 간 천도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한 방에서 잘 때면 매일 새벽 1시에 시천 주조화정으로 시작하는 주문을 외우셨고, 마을에 누가 병이 나면 그 집으로 찾아가셔서 해 빌어주기도(기도해 주기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천도교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시천주조화정 하고 외우곤 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여러 기념물을 설립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조상님의 참여사실과 그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후세에 전달해주기 위해 가족묘 조상전에 동학농민혁명참여비와 동학정을 세웠습니다. 완공된 이후 당시 천도교 교령이셨던 김동암 교령님과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분들이 다수 다녀가셨습니다.

2009년에는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 갑오년동학농민혁명전적비를 세웠습니다. 옥천 증약의 동학농민군은 주력 부대가 우금티 전투를 치르던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군은 증약의 농민군들을 견제하기 위해 군대를 분산해야했습니다. 결국 증약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을 상대로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고 말았지만, 우금티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을 유인하여 힘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이지요. 증조부께서는 바로 이 증약 지역의 농민군들을 위해 식량으로서 소 두 마리를 지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적비는 이 전투를 재조명하고 역사로서 보존하기 위해 2009년에 옥천군향토사학회 주관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청산면 한곡리 문바위 뒤편에 동학농민혁명유적비를 세우고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산면 한곡리는 재기포 당시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린 곳입니다. 이곳의 문바위는 당시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모여들어 ‘새서울’이라 불렸던 곳이며, 농민군들을 훈련시키기도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문바위를 살펴보면 당시 목숨을 건 투쟁을 결의하였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자신 이름을 음각해놓은 흔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시대를 넘어 그들의 결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고 선양하고자 옥천군의 지원을 받아 이곳에 폭4m, 높이7m 규모의 동학농민혁명유적비를 세우고 정자를 설치하여 소박하게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조상님의 참여사실과 그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후세에 전달해주기 위해 가족묘 조상전에 동학농민혁명참여비와 동학정을 세웠습니다.

Q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 조선말에는 삼정의 문란 등 부정부패로 인해 피폐해진 민심, 열강의 침략으로 국운이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이런 시기에 고통 받던 모든 백성들을 대변하여 악습을 없애고 나라를 개혁하려 나서셨던데 후손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약하게나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고 이어나가는데 노력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위해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 회장
이상식

Q 이상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이상식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장성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의 발발로 인해 학교가 불타버려 2년간 서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당에서 중국역사책인 『통감』과 『사략』을 배우며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때도 서울대학교 사범대 역사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 3학년 때는 4·19혁명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겪으며 나도 사회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농촌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군대를 전역하고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약 12년간 재직하였고, 1977년부터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근현대사를 교육했습니다. 격동의 1980년, 5·18 당시에는 전남대학교 교수 대표로 시국선언문을 작성했고, 이와 관련되어 옥고도 치르고 4년간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복직한 이후에는 계속 교수직을 수행하였고, 2003년에 정년퇴임하여 지금까지 명예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요동치는 한국근현대사의 한복판에 서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겪으며 나도 사회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농촌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Q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역사학자 이이화씨와 이전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학농민혁명이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한승현 변호사가 전주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고, 광주·전남에서는 제가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후에는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로서 계속적인 선양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을까요?

제 박사학위 취득 논문의 제목이 「19세기 말 한국의 민중운동연구」입니다. 논문의 골자는 19세기 말에 조선의 민중들은 이미 스스로 나라를 근대화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지요. 이 논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근현대사를 교육하다보니 풀어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한국근현대사의 시작이며 이를 이끌어간 원동력이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근현대사에 대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거의 다 좌경용공으로 몰려 처벌받곤 했죠. 죽음을 무릅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Q

오랜 시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활동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먼저, 장성황룡전적지에 승전기념공원을 만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이 세워질 당시부터 지금까지 매년 5월 27일에 전국 천도교인과 관계자들이 모여 승전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이화씨, 한승연 변호사, 그리고 저와 많은 학자들, 언론이 힘을 합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Q

장성동학농민혁명승전기념공원을 설립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가 어떻게 설립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교수로 재직할 때 학생들과 함께 유적지를 답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중에서 장성황룡전적지를 답사 할 때면 항상 가슴이 아프고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중 가장 큰 승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념물은 찾아볼 수 없었고, 관군대장 이학승의 비만 덩그러니 서있었지요. 그곳을 답사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언젠가 이곳에 동학농민혁명의 승전기념비를 세우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제가 앞장서서 이곳에 기념공원을 세워 그 꿈을 아주 거창하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나치기 쉬운 역사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념공원을 조성할 당시 설계공모를 하였는데, 전남대학교 사범대학교 미술과에 재학 중이던 나상옥 조각가가 지향하던 가치에 맞게 응모하여 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승전기념탑을 보며 보통 죽창의 형상으로 높이 솟아오른 모습에 대해서만 언급하곤 하는데, 장태를 굴리는 농민군의 모습과 기념탑 전면의 부조 또한 아주 우수한 작품입니다. 나상옥 조각가는 이후 국립5·18민주묘지의 5·18추념탑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Q

광주 · 전남권의 거의 모든 곳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학농민혁명 당시 광주 · 전남은 전북과 같은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전라도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으며, 이끌었고 최후까지 치열하게 항쟁했던 장렬한 현장입니다. 광주 · 전남지역에 한하더라도 전주성에 무혈입성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장성황룡전투의 현장이 있습니다. 전라도 지방군을 격퇴한 황도현 전투와 달리 장성황룡전투는 대포를 가진 정규 중앙군(경군)을 상대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 전주성을 무혈입성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우리 힘으로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뼈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우금티에서 일본군의 기관총에 의해 거의 섬멸되다시피 하고 후퇴한 동학농민군들은 장성 갈재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농민군 잔여세력 수만 명이 장흥 석대들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를 건너 섬으로 향했지요. 바로 이들이 한말 의병이 되어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한 이들입니다. 전국 항일의병의 60.1%가 호남의



좌승지 이학승 순의비

의병이었던 것과, 섬 지역에서 항일운동이 특히 많이 일어난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잔여세력이나 그 후손들이 가담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올해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거나 추진 중이십니까?

오는 10월 17일에 장성군청에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의 대촌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Q 광주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설립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떤 기념물이 들어설 예정인가요?

호남지역은 전체가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이며 관련성이 있는 곳입니다. 광주에서는 대촌 출신인 고광문 삼형제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로 활동 하였습니다. 이분들의 참여와 더불어, 증손인 고영두씨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에 이바지한 분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촌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념공원에는 기념탑, 기념비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기념비에는 이이화씨와 김대곤 기념재단 이사장님과 제가 여러 기록물들의 문안을 정리하여 글귀를 새길 예정입니다.

Q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에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동학농민혁명은 근현대사의 서막이자 민주운동의 원동력으로 한국역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이해를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하루빨리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동학농민혁명이 아닌 동학난이다,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를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Q 기념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우선 전 국민이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를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임실, 장수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천리 봉기터

임실지역은 1889년 경 동학이 처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최봉성과 그의 아들 최승우를 시작으로 여타 주요 인물들이 입도하였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삼례집회와 동학농민 혁명 발발 당시 교도가 급증하였다. 임실현감 민충식이 동학에 입도하여 농민군에 협조하였던 것 또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임실의 동학농민군은 백산대회가 개최될 무렵 호응하여

봉기하였는데, 이를 이끈 대접주가 임실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에 입도하였던 최봉성이었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연로하여 그의 아들과 사위에게 봉기를 주도하도록 했다. 임실지역의 농민군들은 남원의 농민군과 함께 남원성을 점령하는 등 남원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지천리는 1965년 섬진강 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었다. 주민들은 크게 멀지 않은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곳에 새로운 지천리 마을을 만들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갑오동학혁명 기념비

갑오동학혁명기념비는 임실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참여자 후손들이 1983년 건립한 것으로 을미삼일운동기념비, 무인별왜운동기념비와 함께 3대 기념비로서 운암초등학교 앞 공터에 세워져 있다. 임실의 농민군은 백산대회 당시부터 봉기에 적극 참여한 이후 집강소 시기에 남원대도소를 세우고 전라좌도를 통합하였던 김개남 장군과 함께 행동했다. 김개남 장군은 7월 중순부터 임실 상여암에서 주둔하다 8월 중 남원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임실에서 남원까지 80리 길을 연이어 행군했던 동학농민군의 수가 7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원성을 근거지로 하여 재봉기한 김개남 장군이 일련의 병력을 이끌고 전주로 향하던 도중 임실에 당도하자 혼감 민충식이 나와 맞이하였다. 민충식은 김개남 장군이 상여암에서 지낼 당시 찾아가 동학에 입도하였고 결의형제를 맺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동학농민군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김개남 장군이 임실을 떠나 다시 전주로 향할 때도 민충식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고 한다.

김개남 장군은 접주들에게 서로 협력하여 남원성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이 중 임실의 접주인 최승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임실의 농민군은 방아치와 관음치, 여원치 일대에서 벌어진 남원지역 최대의 격전에 참여하였으며, 운봉의 민보군이 남원성을 공격하였을 때도 성을 지키기 위해 최후까지 항쟁하였으나, 남원성이 민보군에게 점령당하고 관군과 민보군의 추격에

밀려나 기세가 한풀 꺽이고 말았다. 이후 임실지역의 지도자들은 순창의 회문산으로 피신하여 은거하였다. 6년 뒤 임실로 돌아온 지도자들은 동학의 재건에 성공하여 순창, 진안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이들과 그 제자들은 재건한 세력을 기반으로 동학교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중 김영원의 제자인 박준승이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 또한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3대 기념비는 이러한 임실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2



3

1 원촌전투지 2 허선 집 터 근경 3 삼요정과 삼요정 복원기념비

삼요정

삼요정은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지도자였던 김영원이 후학의 양성을 위해 1883년 세운 학교다. 김영원은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벼슬길에 오르고자 하였으나 과거시험에 세 번이나 낙방하고 말았다. 낙방의 원인이 부정부패에 있다고 판단한 김영원은 과거를 단념하고 고향인 시목동에 삼요정을 세워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의 제자 가운데는 3·1운동의 민족대표로 참

여한 박준승, 양한목 등이 있다.

그는 임실에 동학이 전파되자 사회개혁의 뜻을 가지고 일찍이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임실지역의 접주로서 농민군을 이끌었다. 남원의 방아치 전투와 관음치, 여원치 일대의 격전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남원성 전투에서 운봉의 박봉양이 이끄는 민보군에게 패한 뒤 임실의 지도자들과 함께 순창의 회문산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보전하였다. 6년간의 피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김영원은 최승우의 지원을 받아 전주에 창동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삼화학교를 세우는 등 후세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다.

1919년 당시 3·1운동의 민족대표 후보자로 지목되었으나 고령을 이유로 자신의 문하생인 박준승과 양한목을 추천하였다.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임실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었으며, 고문과 옥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1919년 8월 26일 옥사하였다. 삼요정은 독립운동의 발상지라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으나 2002년 주민들과 임실군의 노력을 통해 복원되었으며, 삼요정복원기념비도 함께 세워졌다. 2008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삼요정을 지정현충시설로 선정하였고 도로변에 삼요정 안내석비도 설치했다.

성밭 마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의 성밭 마을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김개남 장군의 처가와 외가가 있었던 곳이며, 장군이 한때 이곳에서 서당 훈장을 했다고 전해진다. 김개남 장군은 결혼한 첫 해 아내를 잃고 다음 해 성밭 마을의 이씨와 재혼하였다. 장군의 외가가 성밭 마을에 있었던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개남 장군의 단묘는 현재 정읍시 산외면에 있지만, 그 유해는 성밭 마을 뒤편의 산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는 장군의 후손들이 유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두차례에 걸쳐 발굴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허선 집 터

허선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임실지역의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며, 그의 집에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이 오랜 기간 머물렀다고 한다. 최시형은 2차 봉기 당시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농민군이 공주로 북상한 후 전라도

- 1 성밭마을 경로당 2 성밭마을 전경 3 허선 집 터 원경
4 원촌전투지





갑오동학혁명기념비

4

로 거처로 삼아 이곳저곳에서 잠시 머물며 지내다 허선의 집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며 정황을 주시했다. 손병희는 북접농민군을 이끌고 우금티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통한의 패배를 당하고 전라도로 후퇴하였으며, 원평전투 마저 패배한 후 허선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최시형을 찾아갔다. 최시형과 합류한 손병희는 농민군을 다시 규합하여 영동 용산장터까지 북상하였다. 임실의 농민군 중 일부도 보은 북실까지 함께 행동하며 북실전투를 치르고 돌아왔다고 한다.

원촌전투지

장수지역에 동학이 전파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보은집회에 참여한 장수지역 교도의 수가 230명 가량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1차 봉기 당시 장수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백산대회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적지 않은 수의 농민군이 장수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봉기 당시 장수지역 농민군을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는 황내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황내문은 운봉의 박봉양이 가산을 지키기 위해 잠시 동학에 입도하였을 때 그를 받아들인 접주이기도 했다.

집강소시기에 장수지역 역시 김개남 장군의 휘하에 있었다. 남원지역의 농민군들이 방아치와 관음치, 여원치 등지에서 박봉양이 이끄는 농민군에게 패한 후 열흘 정도 지난 11월 26일, 황내문이 이끄는 농민군들은 후퇴하였다 남원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운봉을 공격하기 위해 원촌까지 진격해 있었다. 당시 남원성을 공격하기 위해 운봉 현감 이의경과 함께 출진해 있던 박봉양은 이의경에게 운봉으로 돌아가 성을 수비하도록 하고 자신은 민보군을 이끌고 농민군 주둔지 근처에서 유숙하였다. 다음날 11월 27일 새벽 박봉양 민보군의 기습으로 전투가 시작되었고, 민보군이 접근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농민군은 급히 기습에 대처하였으나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장수로 후퇴하였다. 이 전투를 끝으로 장수지역 농민군의 활동은 수그러들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된 전봉준의 비서 정백현

{ 전봉준의 수행비서와 책사로 활동 }

정백현(鄭伯賢)은 1869년 전북 고창군 공읍면 예전리 상례마을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진주로 아버지 정만원, 어머니 순천 박씨 사이의 외아들이다. 호는 약봉(藥峰) 또는 진암(眞菴)이고 이름은 근영(根永). 자(字)는 백현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2백석의 도조를 거두는 중농 지주였다고 한다. 여덟 살 때인 1876년 공읍면 군유리 숙부로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장성하면서 과거 준비를 하였다 한다. 전형적인 농촌 유교지식인이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성정도 활발하였다고 전해진다.

정백현이 언제 농민군 진영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학농민혁명이 발발되기 이전부터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전봉준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인연으로 그는 1894년 백산봉기 무렵에 가면 정읍집주 송희옥과 함께 창의대장 전봉준의 수행비서로 활약하게 된 것이다. 열다섯 살 때까지 함께 살았던 그의 셋째 아들 병묵의 회고에 의하면 문장에 일가견이 있던 정백현은 각종 창의문과 격문을 작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한다.

{ 농민혁명의 실패와 가족들의 현실 }

천도교회사초고에 따르면 그는 별도로 송문수, 강경중, 송경찬, 송진호 등과 함께 무장현 봉기의 지역지도자로 활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정씨 집안에서는 1893년 11월 고부민란의 ‘사발통문’과 1894년 3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명의의 ‘무장포고문’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설이 전해진다. 그러나 사발통문에 정



백현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해 11월 공주 우금치 공방전에서 관군과 일본 연합군에 패한 동학 농민군들은 살해되거나 체포되거나 피신하였는데, 이 때 정백현은 당촌마을 앞 신촌마을에 사는 친구 봉정 범의 집에 숨어 있었다.

이후 각처의 패잔 농민군과 가족들은 화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섬으로 잠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서울로 들어와 신상을 숨기고 변성명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형편이었다. 정백현은 1895년 1월에 몰래 서울로 들어오게 된다. 이후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 되었고 문서도 모두 불태워졌다. 그의 아버지 정만원은 연좌제로 인하여 수성군에 잡혀 고부관아에 끌려갔고 모친 고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정백현의 큰 아들은 7살, 둘째 아들은 겨우 2살로 너무 어렸기에 연좌제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인 1896년 어머니 박씨도 사망하였다.

{ 서울 도피생활 기록문, 약봉견문집 }

서울로 잠입한 정백현은 고향 소식은 물론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한참 후에 알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울에서 신현구, 이준용, 이중하 등 여러 관리 명사들과 교분관계를 맺었고, 시세를 한탄하며 시를 짓고 술로 회포를 달랬다. 피난상황에서 그가 지은 시문은 약봉견문집(藥峰見聞集)으로 현재 일부가 전해진다. 그는 “슬프다! 대장부가 몸을 일으켜 한번의 실패로 만사가 무너지니 운이런가 시세런가, 때를 얻지 못하고 움직였음이라. 하늘을 우러러 한번 웃음에 내 스스로는 알고 있으나 남에겐 어떻게 간을 내보여 차마 말하겠는가. 한 치 간장을 불에 태울 뿐이라”면서 농민혁명의 실패와 때를 만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다.

또한 객지 나그네로서의 오래 떨어져서 생사조차 확

인할 수 없었던 고향의 가족을 생각하는 애끓는 심정을 다음의 시로 남겼다.

밤에 들은 남쪽 기리기 서리 위를 울고 가니 / 시골 소식 전해줄거나 부질없이 기뻐했네.

오나라 초나라 넓은 강산 나그네길 한없는데 / 노란 국화꽃 소식만 금년에도 변함없네.

정백현은 1903년 경 9년여의 오랜 객지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아산면 오정동에서 특별한 활동이 없이 은둔생활을 지속하다가 1920년 52세로 쓸쓸히 사망하였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향섭



설계 공모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전개과정을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추모 및 기념, 교육과 연구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닌 차별화된 기념공원을 설립하고자 지난 7월부터 72일간 동학농민혁명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황토현전적지에 총 336,992m²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2017년 문을 열 예정이다. 황토현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관군과 대항하여 첫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투가 있었던 장소이며, 1963년부터 2004년까지 갑오동학혁명기념탑, 황토현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교육관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왔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설계공모는 공개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17개 팀이 등록하여 11개의 작품이 제출되었다. 접수된 공모작을 토대로 건축, 조경 전문가 및 인문학자 등으로 구성된 8인의 심사위원회가 10월 2일(목) 입상자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결선에 오를 4개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3일(금) 최종 결선 심사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결과를 통해 당선작을 확정하였다.

당선작인 최우수작은 ‘땅의 기억을 환기’한다는 주제를 내세운 동심원 조경기술사무소, 우리동인건축의 공모작이다. 해당작은 황토현이 지난 역사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땅이 지닌 기억을 찾

아내고, 그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풍경에 담을 것인가를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통해 보여주었다. 아울러 미래의 방문객을 공원의 주체로 설정하여 과거와 미래를 ‘참여’라는 주제로 엮어 낸 서사의 힘과 여러 설계전략을 구체적인 설계안으로 발전시킨 역량이 돋보인 공모작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기념재단은 당선작 외에도 우수상, 장려상, 입선 각 1작품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외 3인의 작품이, 장려상에는 진양교(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외 2인의 ‘황토현 들풀, 하늘을 보다’가, 입선에는 박명권(그룹한어소시에이트) 외 3인의 ‘황토현, 모두가 평등한 땅’이 선정되었다.

10월 23일(목) 열릴 시상식에서는 당선자에게 기본설계권과 실시설계권이 주어지며, 우수상에 상금 5,000만원, 장려상에 상금 3,000만원, 입선에는 상금 1,000만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 당선작



동학농민혁명의 노래

문 병 학 작
이 철 구 작

=88(의미를 담아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민족 살아온 땅
 임들의 숭고한 정신 민주주의 꽃피웠네

수천년 이-어 져 온 고 - 난 의 세월이 여
 영원하라 갑 - 오 선열 넋 - 이 여 불꽃이 여

갑오년 - 함성으로 새세상 - 열렸으니
 님의뜻 - 이어받아 자유평화 - 꽃피우리

우리들 - 가슴속에 동학농민혁명 - 살아있다
 한마음 - 한뜻으로 평등사민회 - 이뤄가리

아-녹두꽃 다시 피면 그날의 함성 기억하리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우-리 함께 이룩하세

‘동학농민혁명의 노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노래를 떠올려보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하는 가사와 함께 멜로디가 떠오를 것이다. 물론 민요 ‘새야 새야’가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념하는 곡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가를 만들고자 지난 5월 19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기념가 공모를 실시하였다. 접수 마감일까지 40편의 공모곡이 접수되어 성황을 이루었으나, 심사결과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기념가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기념가 공모 심사를 맡았던 이철구 한양대학교 작곡과 교수에게 작곡을,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문병학에게 작사를 의

뢰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노래’를 제작해 기념가로 확정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노래’는 10월 11일(토) 개최된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기념식에서 그란데오페라의 합창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재단에서는 해당곡을 CD로 제작하여 전국 기념사업회 등에 배포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에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
재조명의 단초를 마련한

‘고부초교 100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



재경정읍시민회 부회장 김정일

일제는 고부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을 지나쳤을리 없다. 비록 실패한 혁명이지만 역사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는 이 민중의 거사가 일제의 탄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일제 당국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필

자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다. 고부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정읍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학농민의 숭고한 정신을 자연스럽게 가슴에 받아들이며 자란다.

이 곳 고부에는 두승산(斗升山)이 있다. 이 산은 방장산(고창), 봉래산(부안)과 더불어 호남의 '삼신산'이라고 불린다. 호남평야 한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두승산은 상생(相生)과 개혁을 표방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요람이다. 두승의 두(斗)는 벼의 용량을 재는 그릇이며 승(升)은 쌀의 용량을 재는 그릇으로 이름에 호남평야의 풍요로움이 담겨 있다. 이를 중심으로 펼쳐진 고부평야는 호남 곡창 지대의 주축을 이루었다. 당시의 고부는 이 일대에서 나오는 쌀의 집산지이자, 농경 사회의 중심지로써 정읍보다 큰 고을이었다.

일제는 고부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을 지나쳤을 리 없다. 비록 실패한 혁명이지만 역사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는 이 민중의 거사가 일제의 탄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일제 당국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부는 반란의 고장이었기에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난(亂)'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저들의 의도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일제강점 당시 1914년과 1935년 두 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 과정

에서 고부가 정읍과 부안, 고창 등에 나뉘어 편입됐다가 결국 정읍에 속한 면으로 축소된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올해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 치하와 해방을 거치면서 줄곧 '난(亂)'으로 평가 절하되어 왔다. 그러던 중 1963년 10월 3일 처음으로 '혁명'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황토현전적지에 세워졌으며, 지난해가 이 탑의 건립 50주년이었다. 그럼에도 무심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여전히 역사의 큰 맥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곁가지쯤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06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며 고부관아 자리에 있는 고부초교의 개교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고부초교 개교 100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 발행이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고부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2006년 당시 고부초등학교는 전교생 103명에 7학급인 작은 학교였다. 그러나 이 학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옹골찬 역사의 기운이 느껴진다.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고부면에 둑지를 틀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혁명의 실마리를 제공한 탐관오리 조병갑이 부임하였던 고부관아 안에 세워진 학교라는 점 또한 예사롭지 않다. 개교 100주년을 1년 앞둔 2005년 8월에 고부초교 총

동창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총동창회를 통해 모교 사랑을 도모하기 위한 동창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첫 작품이 바로 다음해 7월 11일에 발행돼 세간의 화제를 일으킨 ‘고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였다. 우표에는 개교 당시와 현재의 학교 전경을 번갈아 중심 사진으로 쓰고 주변부는 보조 사진으로 배치했다. 또한 태극기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1906년에 개교한 학교의 설립일이 공교롭게도 광복절이라 이를 기리기 위해서였다.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 만으로도 화제일 법한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교 100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 발행’을 하게 되었기에 언론에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는 고부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으며, 일부 언론에서 동학농민혁명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재조명을 시작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였다.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개최된 ‘고부초교 개교 100주년 행사’ 또한 성황리에 치러졌

다. 짧은 기간 동안 학교 발전의 행사를 위해 모인 금액이 무려 1억 7천만 원이나 된데이 100주년 행사 날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동문 2천여 명과 재학생,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동학농민혁명 때 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면 놀랐다. 한 장의 ‘개교 100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가 동학농민혁명 재조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표발행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불을 지피듯이, <월간조선>에서는 묻혀버린 역사적 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후의 행적을 확인 취재하여, 2006년 11월호에 24(62-85)쪽에 걸쳐 실었다. 제호는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팀판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의 증손녀’로, 부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적 조병갑은 후

일 대한제국의 판사로 동학교주 최시형에 사형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호에도 21(496-516)쪽에 걸쳐 ‘조병갑은 동학혁명 지도자 전봉준의 부친을 곤장으로 쳐죽여’라는 제호와 부제 아래, ‘조병갑은 부임하는 곳마다 제손으로 공덕비 세워 고부군수 때 1000냥 수탈해 아버지의 공덕 비각 세웠다.’는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 해 12월 9일 조기숙 씨는 ‘동학농민혁명 112주년 기념 유족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유족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초청함으로써 행사에 참여한 조 씨는, 유족들 앞에서 증조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으며 진심 어린 사과에 유족들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역사는 힘 있는 자의 논리라고 했던가. 우리 조상의 숭고한 ‘혁명’을 ‘난’으로 폄하한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는 정신적 자산 ‘동학농민혁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남겨 준 그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필자약력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여행작가 /전 정보통신부 홍보담당관으로 정년퇴직했으며 저서로는 <나 같은 공무원과 이야기 하고 싶다><우체국도 은행일 한다>등이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총동창회 고문과 재경정읍시민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기념재단

시방문

재단 2기 5차 이사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



재단 2기 5차 이사회가 지난 7월 10일(목) 용산역 ITX 5호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지침 용역을 맡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P.A) 조경진 교수 외 연구원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현상공모 지침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사들은 발표 청취 후 지침의 수정방향과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조언하였다.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며, 기념과 추모라는 두 측면에서 성공적인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2014년도 상반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25일(금) 교육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하우봉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최 방안, 어린이전시실 활성화 방안, 2014년도 유물구입, 120주년 기념 특별도록 제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현 자문위원들은 이번 자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3년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공모 심사



교사대상 '테마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



지난 5월 19일(월)부터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공모가 7월 18일(금) 종료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약 60일간의 공모를 통해 40여점의 기념가가 접수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접수된 공모작의 심사를 위해 실용음악과 교수, 작곡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7월 25일(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심사위원들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이 확정하였으나, 아쉽게도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우수상에는 박수진 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장려상에는 민경아 씨의 '사람이 하늘이 되고'가 각각 선정되었다. 심사결과 대상이 선정되지 않아 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심사위원 중 이철구 한양대학교 작곡과 교수에게 의뢰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노래'를 제작하였으며, 120주년 기념 대회 중 합창단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기념가 공연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제6회 '테마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7월 30일(수)부터 31일(목)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여명의 교사들은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본 뒤 정읍의 황토현전적지, 말목장터, 만석보터, 주산마을, 부안의 백산성터, 고창의 선운사, 무장기포지, 장성의 황룡전적지 등 이를에 걸쳐 호남권의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이번 답사에 참가한 서울 양강중학교 김봉선 교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전파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있으며,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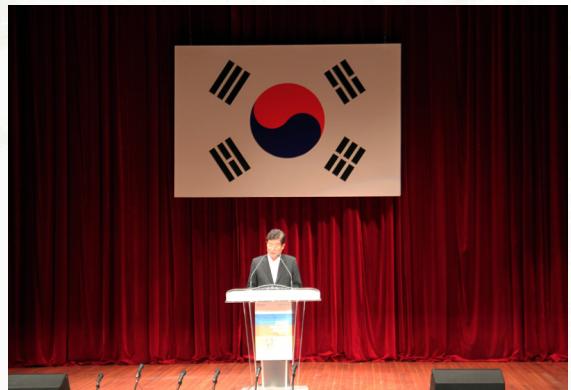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특별전시가 지난 8월 18일(월) 개막식을 가졌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특별전은 올해 12월 31일(수)까지 전시된다.

첫 번째 파트인 전국화 부분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소개하며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민중항쟁인 점을 부각하였다.

두 번째 파트인 세계화 부분은 동학농민혁명과 유사한 전개과정과 특징을 가진 세계의 혁명들을 소개하며, 중국 태평천국역사박물관 소장유물을 국내최초로 선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화 부분에서는 중고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포스터 입상작 21점을 전시하였다.

김대곤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향후 우리역사에 동학농민혁명사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 것인지와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세계적 혁명으로 높이는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이 지난 8월 26일(화)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한국사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 예천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 박학래의 자서전인『학초전』과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조직된 김산소모영에서 작성한『소모사실』에 대한 연구내용이 최초로 발표되어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경상도 북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신영우 충북대학교 교수,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김봉곤 순천대학교 연구교수,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종우 대구송일초등학교 교장, 정진영 안동대학교 교수, 권대웅 대경대학교 교수, 김남일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토론문 발표가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준비현황보고회



지난 9월 11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준비현황보고회가 개최되었다. 10월 10일(금)과 11일(토)에 걸쳐 개최될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를 대비하여 추진위원들에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준비현황보고회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인사,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원, 천도교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윤석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의 120주년 기념대회 준비현황보고, 대회 성공개최 결의문 발표,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맷음인사로 이어졌다.

이날 김대곤 이사장은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주신 모든 분들께서 조금씩 모아주신 힘이 태산 같은 뜻이 되어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기념대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우표 제작



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하기 위한 우표를 제작하였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의뢰를 통해 제작된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우표’는 상단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사진을, 좌우측과 하단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사진을 삽입하였으며, 중앙에는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의 슬로건인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를 새겼다.

제작된 우표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 중앙총부, 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기념재단 관계자 등에 배포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김윤덕 의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연합, 전주 완산 갑)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과 함께 배재정 · 강기정 · 정세균 · 강동원 · 이원욱 · 이상직 · 박민수 · 최규성 · 이춘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조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도록 하며, 기념재단의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사용 · 수익 근거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10년 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참여자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2009년 활동이 종료됐고,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옥마을서 가보세 갑오년, 전주성 공연

지난 8월 8일(금)에서 17일(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는 연극 가보세 갑오년, 전주성이 공연되었다.

공연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하여 상연되는 총체극으로 전북지역 예술인 80여명이 대거 참여하여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입성, 전주화약을 맷은 과정, 자치기구인 집강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는 SNS 사전이벤트를 통해 모집한 시민 120명의 얼굴을 전봉준 장군의 얼굴로 형상화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연출을 맡은 정진권씨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주성 입성에 주목하여 전주지역이 지닌 역사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강좌 ‘동학농민혁명과 전북’열어

전주시에서는 120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이해를 돋기 위해 시민들 대상으로 강좌를 마련했다. ‘동학농민혁명과 전북’을 주제로 한 이번 강좌는 9월에서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강좌는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과 전북정신’을 시작으로,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의 ‘동학사상과 농민혁명’, 김양식 충북학연구소장의 ‘관민협치, 전주대도소와 집강소’,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전봉준 · 김개남 · 손화중과 동학농민혁명 유적’, 신영우 충북대학교 교수의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 한철호 동국대학교 교수의 ‘갑오개혁과 동학농민혁명’, 마지막 강의는 신순철 원광학원 이사장의 ‘120년, 동학농민혁명 다시 보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남원 대도소터 표지석 설치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남원 대도소터(구 남원군청사, 현 남원문화원)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설치할 예정이다. 표지석에는 앞 뒷면에 해당 위치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남원 대도소 터임을 설명하는 내용을 새겼고, 좌측면에는 판소리의 본고장인 남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해당 위치에 조형물을 세우려는 타 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올해 남원시의 협조를 받아 설립 가능하게 되었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10월 10일(금) 제막식을 할 계획이며, 동시에 광한루 옆 농민군 참수 현장에도 함께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스터디 그룹 ‘녹두교실’운영

고창군에서는 지난 8월 26일(화)과 27일(수) 양일간 동학농민혁명 스터디 그룹 ‘녹두교실’을 운영하였다. 올해의 ‘녹두교실’은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을 목표로 하였다. ‘녹두교실’ 회원들은 26일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27일 경북 상주와 충북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탐방했다. 고창군에서는 “120년 전, 동학농민군들이 울부짖었던 자유, 평등, 자주의 함성을 다시 되새기고 이어가야만 밝은 미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전했으며, 동학농민혁명 역사 해설사 배출을 목표로 앞으로도 녹두교실과 같은 정신선양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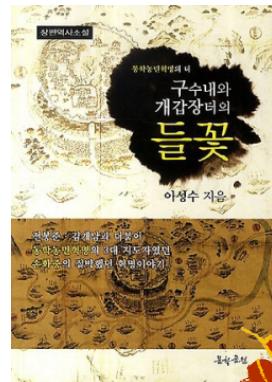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 재출판

이성수 소설가가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소설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문학공원)’이 출간 한 달 만에 재 출판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은 동학농민혁명의 3대 장군 중 가장 조명되지 않은 손화중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여 그가 활약했던 구수내(현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와 개갑장터(고창향토문화유적 제1호)를 중심무대로 삼았다. 또한 반란으로 매도되어 숨죽여 살았던 수많은 참여자와 그 후손들의 억눌려온 현실에 대해서도 재조명하였다.

작가는 “고창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손화중과 그 주변 인물인 홍낙관 송문수의 이야기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당시를 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 재개관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관장 이윤영)이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8월 31일(일) 재개관했다.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은 천도교 중앙총부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교인들의 성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1985년 설립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적 자료와 동학, 천도교 관련 자료들을 전시해왔다.

전주시와 천도교중앙총부의 지원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기념관은 1층에 있던 강당을 2층으로, 2층의 전시실을 1층으로 옮겨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재개관식에는 김성주 국회의원,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인환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석태 전국유족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재개관식 이후에는 동학농민혁명120주년기념식과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의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고산도서관,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지난 9월 19일(금) 원주 고산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 등 원주군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정읍지역 동학농민 혁명 유적지 답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이번 답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지난 2013년 실시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이어온 동학 120년, 열어갈 희망 1200년'을 슬로건으로 선정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고부관아터, 전봉준고택, 말목장터, 만석보터 등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유적지를 둘러보았다.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20주년 기념대회

지난 10월 9일(목) 완주 삼례봉기 역사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2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의원 등 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주 완주 초등학생들의 사생대회와 120주년 기념식에 이어 윷놀이, 제기차기 등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이어졌다.

기념대회가 열린 삼례봉기 역사광장은 2003년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설립한 것으로, 당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군이 동학농민혁명 재봉기를 위해 집결한 것을 기념하여 조성되었다.

이날,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정호 회장은 '지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려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북도민들이 힘을 합해 나서야 할 때'라 전했다.



상주 동학농민혁명 문화제

상주 왕산공원에서 제1회 동학농민혁명 문화제가 지난 10월 18일(토) 개최되었다. 상주에서는 매년 상주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를 지내왔다. 올해부터는 위령제에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념공연, 시화전, 시낭송회 등 행사를 추가하였으며, 명칭도 동학농민혁명 문화제로 변경하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시민단체 농민단체 회원, 상주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 당시 역할하게 희생된 동학농민혁명군의 넋을 기렸다.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현재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회의 명칭 또한 사단법인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로 변경하고 임원진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힘쓸 계획이라 밝혔다.



알려드립니다

법정기부금 기탁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법정기부금이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서,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기관(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기부금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며, 감독관청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는 법정기부금을 통해 관련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법정기부금 기부자 손비인정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손비인정



웹진 '녹두꽃' 독자원고 모집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들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내용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기,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나아갈 길 등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분량

A4용지 1 ~ 2장 가량(11포인트, 줄간격 180%)

□ 보내실 곳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jiori@1894.or.kr 우편송부 또는 이메일 송부

※ 송부 시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 회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평등·개혁 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동학농민혁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해 쓰러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제와 오늘의 현상을 통해 내일을 알고자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통해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뜻있는 분은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 동학농민혁명포럼 가입시 우대사항

-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개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 우선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전국기념대회 및 각종 행사 초대
- 동학농민혁명포럼 회원간의 발표회 및 토론회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간 서적, 각종 자료 등 무료 제공 등

※ 가입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상단 [포럼회원가입] 클릭

※ 문의 : 기념사업부 최경훈(063-538-2894, oasis@1894.or.kr)





웹진 '녹두꽃' 수신요청방법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4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에 위치한 추념의 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가을

축하인사

주요사업

- 재단포커스
- 기획특집

칼럼 & 인터뷰

- 녹두칼럼
- 인터뷰 ① 박굴(창여여 유족)
- 인터뷰 ② 동행공감

동학농민혁명

- 문화기
- 인물열전
- 유적지

소개합니다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 독자투고

녹두꽃 소식

- 시발동문
- 전국 네트워크

알려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수도권) 2014년 가을호(17호) 발행 201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전국) 2014년 가을호(17호) 발행 2014년 10월 15일
전체 청음서 의견문 접수 기간은 2014년 10월 17일 ~ 2014년 10월 24일
e-mail: 031-528-2853 E-mail: 1586@1586.or.kr 편지: 1586.or.kr 서면: 031-528-2853
본문에 실린 저작 저작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자에게 악용할 수 없습니다.
개간지 <녹두꽃>은 창간호(2010년 가을호)부터 이번호 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웹진 '녹두꽃'은 수신요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djiori@1894.or.kr로 수신희망 이메일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